

2000년 1월 1일 웃는 자와 우는 자

맹 철 현 / 한국Unisys(주) 상무이사

2000년 0시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때, 사람들은 환호하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 하며 컴퓨터의 처리상태를 응시하는 많은 컴퓨터 종사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2000년 1월 1일을 상상해 본 것이다.

2000년 문제를 제기하며 1년전 처음 세미나를 했을 때와 지금은 2000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일년 전 처음 2000년표기문제 세미나를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많은 전산담당자들이 대수롭지않은 문제로 생각해서 대응책을 별로 추진하지 않았다. 특히 작년에는, 왜 그렇게 2000년 문제를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아마도 컴퓨터 메이커가 2000년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비즈니스를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또, 급하면 밤새워서 하면 되지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전산팀도 많았다. 그것이 소위 2000년 문제의 부정증후군(Denial Syndrome)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인식은 바뀌고 있으나 아직도 준비를 게을리하는 많은 기관과 회사가 있으며, 문제는 알고는 있으나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손 놓고 있는 기업도 있다. IMF사태로 인하여, 기업의 생존이 문제이지, 2000년 문제는 살고 난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 또, 상부기관에서의 해결 대책을 기다리는 곳도 있고, 밑에서 기안을 해서 예산도 신청하고 해야 지원을 하지 하고 기다리는 곳도 있다. 이대로 가면 문제는 있으나 해결은 없는 기관이나 기업이 상당 수 있을 것 같다.

Capers Jones Software Productivity Research사의 발표에 의하면, 1997년에 2000년 문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1999년까지 대응 완료될 확률이 80%, 1998년에 시작하면 1999년까지 대응 완료될 확률이 60% 밖에 안된다고 했다. 또한 가트너그룹(Gartner Group)에서는 2000년 문제의 대응이 아시아 국가는 2000년까지 완료될 가능성이 35%밖에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0년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강력한 인식이 있어야 2000년문제의 대응에 진척이 있을 것 같다.

2000년 문제를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다. 그러나 2000년 문제는 기술적인 것 보다 프로젝트 관리적인 면이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과 열성을 다 해야 한다. 2000년 문제의 인식의 범위에도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전산부문의 프로그램만 고치고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대상 범위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달라져야 할 것 같다. 2000년표기문제는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나누어서 그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Information Technology)부문이다. 이 부문은 업무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응용체제(OS), 시스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전반과 메인프레임 컴퓨터, 하이 엔드 서버, 로우엔드 서버, PC, 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전반이 이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자산 조사, 영향분석등을 수행한 후 그 대응책이 실행되어 져야 한다. 이 부분은 전산부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Non-IT부문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엠베이드드(Embedded)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전화 교환기(PBX등), 빌딩자동화 장비, 교통신호제어 장비, 송유관 배송 설비, 도시가스 배송설비, 송전설비, 자동화창고 장비, 엘리베이터, POS장비, 팩시밀리 등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부분이 사회나 기업의 기반 설비들이다. 이 부분은 전산 부서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나 몰라라는 식으로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2000년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치된 부분이다.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가? 역시 전산부서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화 해서 담당부서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일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은 국가나 사회의 기간 설비일 경우가 많고, 잘못되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한 도시의 교통제어신호체계시스템이 요일별로 다르게 프로그램 되

어 있는데 2000년으로 입력해서 테스트해 보니, 일요일에 화요일 신호가 켜지는 등, 요일별로 엉뚱한 신호가 제어되는 것이 발견 되었다고 한다.

정유공장에서는, 유류분배장치의 칩(chip)에 2000년문제가 발견되어 칩을 교환하려 했으나, 새 칩이 마더보드(mother board)에 맞지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마더보드를 만들어 시스템에 끼어보니 이제는 마더보드가 시스템에 끼어지지 않을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을 통째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라고 없을 수 있다고 하겠는가?

최근에는 대그룹을 중심으로 공장설비의 2000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늦었지만은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장의 PLC나 SCADA시스템 같은 장비들은 내부에 컨트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그 프로그램이 2000년 날짜 제어를 잘못하면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의 각종 컨트롤러, 타이머, 스위치, OS, 펌웨어,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모두 조사하여 2000년 대응문제를 점검하지 않으면, 과다/과소 생산이 된다든가, 불량률이 높아진다는가, 가동이 멈춘다는가 할 것이다. 공장 설비의 문제는 사실 IT부문의 2000년문제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특히 전문가가 많지 않는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형 공장은 이 문제가 정말 사각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창원에서 2000년 문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공장 요원이 참석한 사실이 없었다는데 그 인식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부문이야 말로 국가적으로 산업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병원은 괜찮은가? 병원도 컴퓨터로 제어되는 여러 가지 검사기기들이 많다. 이러한 기기들이 오 작동된다는가 결과를 잘못 기록하면 치료와 진료에 엄청난 영향을 주어 생명을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셋째로는, 서로 연관되어진 업체(Supply-chain)와의 2000년표기문제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하여 그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사용자는 해당 컴퓨터 공급업체와, 소프트웨어를 외주해서 개발한 경우는 그 외주 업체와, EDI로 문서를 주고 받는 경우는 그 업체들과, 은행과 기업이 펌-뱅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인터페이스를, 무역 업체는 외국의 거래 회사와의 제품, 사양, 문서, 전자우편, 온라인 데이터 등을 크로스체크하여 2000년표기문제가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마도 대행 무역상사들은 외국의 업체로부터 2000년표기문제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공문을 요구 받았을 것이다. 일반 회사들도 거래 업체에서 납품 받는 물품이 2000년문제에 대응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 문제가 나타난 예를 보면, 국방이나 항공분야에서는 인공위성의 위치 추적에 문제가 생기고, 항공기 이착륙과 공항 관리용 컴퓨터가 2000년표기문제 준수가 안된 경우도 발견 되었다고 한다. 또 2000년문제대응이 안된 회사하고는 거래를 안한다든가, 납품자격이 없다든가의 제약사항을 이미 통보한 업체도 많다.

이처럼 Non-IT부문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기업에, 더 크게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철저한 대응이 요망된다.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2000년표기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2000년표기문제로 인하여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우리나라는 IMF사태로 인해 2000년표기문제가 뒷전이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만전을 기하여 제2의 IMF같은 사태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어있지 않든간에 1초의 어김이 없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2000년표기문제는 기업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적인 문제이며, 우리 생활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서둘러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고경영자분들은 이것이 부하의 문제가 아니고 곧 나의 문제이며, 기업 운명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IMF이상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며, 내가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팀에서는 골치아픈 것을 맡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요즘처럼 구조조정기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기쁨으로 이 문제 해결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 1월 1일. 어떤 사람은 2000년문제가 다 대응이 완료되어 훌기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세기를 희망으로 가족과 같이 보신각의 타종소리를 들으며 맞이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세기를 찬송하며 맞이 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문제의 대응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이 축복의 시간에 전산실이나,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노심초사하며 2000년을 맞을 것이다.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다. ◆